

(...페이지에 이어) 총장으로 만들었다. 그런 대통령이 또다시 '검찰의 엄정 수사에는 성역이 없다'고 했다. 권력에 순종하는 검사들로 검찰 지휘부를 꾸려 놔오니 걱정할 것 없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다는 유재수씨는 수천만원 뇌물을 받고도 청와대 특감반 조사를 빠져나가 영전까지 했다. 그의 구명에 정권 실세들이 총동원되다시피 했다. 하지만 검찰은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이라며 수사를 종결했고, 법원은 유씨를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검찰은 청와대와 서울중앙지검장이 의혹 대상인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행 피소 유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 하지 않고 있다. 석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수사 중'이라고만 한다. 서울중앙지검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

간부가 KBS에 채널A 기자 사건 관련 허위 녹취록을 흘렸다는 의혹, MBC와 여권 인사들의 사건 조작 혐의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 성역 없다'는 대통령 말에 진심이 담겼다면 이런 사건들부터 철저한 수사를 다시 지시해야 한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대통령의 30년 지기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7개 부서가 총동원된 사건이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모든 정황과 수사 결과가 대통령이 '몸통'임을 가리켰다. 그러자 권력에 칼끝을 들이냈던 검사들을 수차례 인사로 좌천시키고 총견 검사들을 전면배치했다. 수사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

SL Dental Centre on 4th ST
(previous Killarney Dental Clinic owner)

한인 치과의사 산 리 Sean Lee

Tel: 403-228-5367 / Fax: 403-229-2876
website: www.sldentalcentre.ca
email: mission@sldentalcentre.ca

SL DENTAL CENTRE: 1000 Mission Professional Bldg
2303 4th Street SW, Calgary, Alberta T2S 2S7

룸살롱 7000만원 쓴 고대 교수들 장하성도 있다

교수 12명, 4년간 법카 221번 유용... 금액 낮추려 91번 쪼개기 결제

법인 카드로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희주점에서 7000만원가량을 결제해 교육부가 중징계를 요구한 고려대 교수 12명 가운데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 대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 1~2월에 진행됐고 고려대가 개교 115년 만에 처음 받은 교육부 종합감사였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유희주점에서 2016년부터 4년간 221차례에 걸쳐 6693만원을 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를 사용해 중징계 대상이 된 12명의 교수는 당시 경영대 교수였던 장하성 대사를 비롯해 경영대 교수 등과 기획예산처장 등 보직 교수를 지낸 교수들이다.

장하성 대사는 2005~2010년 고려대 경영대학장을 3연임했고, 2010년 총장 선거에 출마해 상위 3명의 최종 후보자로 추천됐지만 자진 사퇴했다. 2017년 5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됐고, 지난해 고려대에서 정년 퇴임했다. 이에 따라 장 대사에 대한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는 '불문(不問)·징계를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장 대사 측에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고려대 주변에서는 "장 대

법인카드 부당 사용 적발 내역

- 교수 13명이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희업소 1곳에서 4년간 200여차례 6693만원 학교 법인카드 결제
- 해당 유희업소는 테이블과 소파 있는 룸에 노래방 기기가 있고 여성 종업원이 접대
- 221차례 가운데 91차례는 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로 쪼개기 결제

같은 유희주점에서 학교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사례

2016년 3월 24일		
결제 시간	23시42분14초	23시42분44초
금액	24만원	24만원
카드 종류	연구비 카드	행정용 카드

사가 유희주점에 직접 가지 않고 법인카드를 빌려준 것일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그럴 경우라면 중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정 유희주점 1곳에서 4년간 벌여져

교육부 감사 결과 처분서에는 이 유희주점에 대해 '서양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양주 등을 판매하고 별도 룸에 테이블, 소파, 노래방 기기를 갖췄고 여성 종업원이 손님 자리에 착석하여 술 접대 등을 하는 유희업소'라고 돼 있다. 서양 음식점이라고 신고돼 있지만, 실제로는 룸살롱식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86차례에 걸쳐 총 2487만원을 결제한 A 교수

는 현재 한 단과대의 학장을 맡고 있다. 대학 본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기도 했다. 12명의 교수 가운데 2명은 학교 예산을 총괄하는 보직인 기획예산처장을 지냈다. 이런 교수들이 교비 회계에서 지출되는 학교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쓴 것이다. 문제의 유희주점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 명목은 '업무협의 관련 급식비' '행정제도 개선 사업비' '전임교원 연구활동비 지원' 등이었다.

고려대 안팎에서는 "학교 명예에 막질을 했다"는 말이 나온다. 한 고려대 교수는 "오랫동안 묵었던 문제가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고려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부 감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에 대해 구성원에게 사과하라' 등 4가지 사항을 학

일년에 세 번 좌천 인사



1981년 저질 연탄 사건은 정권의 '검찰 학살 인사' 사례로 회자된다. 서울지검 특수부가 연탄에 불량 재료를 첨가해 폭리를 취한 제조사 대표들을 구속했다. 대통령은 서울지검장을 격려하면서 '배후 공무원도 수사하라'고 했다. 그런데 수사 칼날이 정권 실세들에 미치지 달라졌다. 검찰총장을 날리고 수사

검사들을 모조리 한직으로 쫓아냈다. 청와대 오더를 받은 법무장관은 "경제 관련 수사는 승인받으라"고 했다. ▶그 뒤 정권들도 자기들 뜻을 거스른 검사들에게 '뒤끝'을 보인 일이 적지 않다. 검찰 간부가 법무연수원 교재에 "정권은 반드시 인사로 보복한다"고 썼을 정도다. 그래도 드러내놓고 보복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여론 눈치도 살피고 대통령들 스스로도 권한

행사를 자제할 줄 알았다. 한 때 좌천됐던 검사가 나중에 요직으로 복귀해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다르다. 대통령은 권력을 자제할 줄 모르고 '검찰총장 사전 협의' 등 인사 원칙은 모두 무너졌다. 검사들 필수 보직 기간 1년을 보장하겠다고 해놓고선 6개월이 멀다하고 정권 비리 수사팀을 공중분해시키고 자기 편 검사들을 요직에 심었다. 인사 기준은 오직 하나, '우리 편이나, 아니냐'뿐이다. 밍보여 쫓겨난 검사가 하도 많이 수사 능력으로 치면 대검·서울중앙지검보다 법무연수원이나 제주지검이 더 나은 정도라고 한다. 말 다했다. 올해 있었던 학살 인사로 검사 35명이 좌천되거나 옷을 벗었다고 한다. 실제로 훨씬 많

을 것이다. 이게 이들의 '검찰 개혁'이다. ▶그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총북 진천 본원에서 근무시키라고 지시했다. 인사철도 아닌데 한 검사장만 꼭 집어 발령냈다. 조국과 유재수를 수사했다고 올 초 부산고검으로 날리더니, 잊지도 않은 '검·인 유착'을 했다며 연수원 용인 본원으로 다시 쫓아냈다. 이번엔 언론에 추 장관을 비판한 때문이라고 한다. 치졸하기 짝이 없다. '일년에 세 번 좌천'은 독재 시절에도 없던 신기록이다. 아마 세계신기록일 것이다. 한 검사장은 전 정권을 수사할 때는 이 정권에 의해 무슨 '영웅'처럼 떠받들

어졌다. ▶요즘 정권에 의해 '검찰 개혁'된 애완견 검사들이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펀드 게이트'를 덮고 조작한 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비슷한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권불십년(權不十年)이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역사는 돌고 돈다. 저질 연탄 사건 때 검찰 학살 인사를 했던 정권 사람들은 결국 줄줄이 감옥 신세를 졌다.

어졌다. ▶요즘 정권에 의해 '검찰 개혁'된 애완견 검사들이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펀드 게이트'를 덮고 조작한 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비슷한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권불십년(權不十年)이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역사는 돌고 돈다. 저질 연탄 사건 때 검찰 학살 인사를 했던 정권 사람들은 결국 줄줄이 감옥 신세를 졌다.

교 측에 요구한 상태다.

◇결제 금액 낮추려 91번이나 '쪼개기 결제'

교육부에 따르면, 고려대 교수들은 결제 금액을 낮추려고 법인카드 2장을 이용해 '쪼개기 결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

르면, 2018년 12월 18일 밤 이 업소에서 행정용 카드로 48만 7000원, 연구비 카드로 23만 3000원이 결제됐다. 2분 19초 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결국 72만원인 술값을 40만원대와 20만원대로 나눈 것이다. 이런 식으로 2~4회 번갈아가며 쓴 분할 결제가 총 91회(2625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는 해당 교수들에게 연락했지만 전화기를 꺼놓거나 받지 않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고려대는 "해당 교수들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은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부적절한 회계 집행은 환수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 자 여행사

캐나다 동부투어 및 미 동부투어 상품

1. 캐나다 동부 (Best) 4박 5일 : 매주 일, 월, 목요일 출발
2. 캐나다 동부 & 미국 동부 8박 9일 : 매주 수요일 출발
캐나다 동부 & 미국 동부 6박 7일 : 매주 목요일 출발
3. PEI & 대서양 일주 8박 9일 : 매주 금요일 출발
PEI & 대서양 일주 6박 7일 : 매주 토요일 출발

유럽 투어 상품

1. 파노라마 서유럽 11박 12일 (BEST 상품)
2. 핵시 서유럽 6박 7일
3. 이태리 일주 7박 8일
4. 동유럽, 발칸 유럽 12박 13일
5. 동유럽 7박 8일
6. 발칸 일주 11박 12일
7.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박 12일
8. 터키 그리스 10박 11일
9. 성지 순례 9박 10일 (이스라엘, 요르단)

에어 캐나다, 대한항공 한국행 세일 !!!

에어 캐나다 세일

대한항공 세일

대/한/항/공

미서부 투어 상품

1.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4박 5일 : 매주 수, 목, 금 출발
2. 그랜드 캐년 3박 4일 : 매주 월요일 출발
3. 서부 4박 5일 (3대캐년) : 매주 일, 월요일 출발
4. 서부 대륙 6박 7일 : 매주 월, 금요일 출발
5. 서부 대륙 7박 8일 : 매주 일, 월, 금요일 출발
6. 엘로스톤 3박 4일, 첫출발 5월 13일, 매주 월, 금요일 출발

비행기에 관한 모든 것

크리스틴 / TEL
403-454-8717, 403-455-1004
E-MAIL: gajatravel@gmail.com

"유럽 투어 출발일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